

# 미국 국무부의 외교사료집 편찬과 기록학적 쟁점

## Compilation of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ries and the Archival Issues

이 상 민 (Sangmin Lee)\*

### 목 차

- |                             |  |
|-----------------------------|--|
| 1. 서 문                      | 3.5 비밀해제기록의 재검토: 정부 투명성 vs. 국가안보 이익의 보호 쟁점 |
| 2. FRUS 시리즈 개요              | 3.6 의회의 외교사료집 편찬 통제: FRUS 법의 제정            |
| 3. FRUS 시리즈 편찬의 발전과 기록학적 쟁점 | 4. FRUS 시리즈 편찬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                 |
| 3.1 외교사료집 편찬과 행정부의 설명책임성    | 4.1 FRUS 시리즈 편찬 업무절차                       |
| 3.2 외교사료집 편찬의 정치적 고려와 이용    | 4.2 FRUS 시리즈 편찬 원칙                         |
| 3.3 비밀 외교기록의 해제와 통제권에 관한 갈등 | 5. 외교사료집 편찬을 위한 비밀기록 접근 및 비밀해제 업무          |
| 3.4 민간 역사자문위원회의 수립과 비판적 역할  | 6. 결 론                                     |

### <초 록>

이 연구는 외교사료집의 편찬에서 나타나는 기록학적 쟁점을 미국의 외교사료집(FRUS)이 발간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분석한다. 그러한 기록학적 쟁점에는 기록의 이용의 한 방법인 외교사료집 편찬의 목적과 의의, 비밀 외교기록의 해제와 공개 활용 문제,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와 외교정책의 설명책임성 제공 간의 균형 모색, 외교사 편찬의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역사기록 편찬의 방법과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US 시리즈에 관해서 네 가지 주제를 분석한다. 첫째, FRUS의 출판 내용과 맥락을 살펴본다. 둘째, FRUS 시리즈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주요한 전환기에 나타났던 정치적, 기록학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셋째, 역사기록 선별과 비밀해제를 포함한 FRUS 시리즈 편찬의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을 개관한다. 넷째, FRUS의 적시 출판에 지장을 준 국가안보기관의 비밀기록에 관한 접근 및 비밀해제의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주제어: 역사편찬, 외교사료, 사료편찬, 미국외교사, 다큐멘터리 역사

### <ABSTRACT>

This study traces the evolution of the compilation of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ries and analyzes its archival issues from its historical development. The study examines the purposes of publishing the compilations of the diplomatic documents, an issue of making a balance between secrecy for national security and accountability of diplomacy, neutrality in compiling historical materials, and methods and principles of the compilation. To analyze these records issues, the study examines the contents and contexts of the compilation, historical evolution of the compilation, and the political and records issues of the compilation in the U.S. political history. The declassification issue for the historical compilation was also examined because the issue was a major obstacle to the timely publication of FRUS.

Keywords: historical compilation, diplomatic documents, U.S. diplomatic history, FRUS, documentary history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cacrmlee@yahoo.co.kr)

■ 접수일: 2013년 3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3년 3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20일

## 1. 서 문

미국 국무부는 1861년 이래 『미국의 대외관계』(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FRUS로 약칭함)라는 제목으로 외교사료집을 편찬하고 있다. FRUS 시리즈는 링컨 행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닉슨-포드 행정부까지 국무부와 국가안보기관이 생산한 수많은 외교문서 및 국가안보 문서 중에 미국 외교사의 가장 중요한 기록을 선별하여 편찬한 방대한 규모의 외교사료집이다. FRUS 시리즈는 최초 출간연도 1861년부터 발간 150주년이 된 2011년 말까지 총 493권이 출간되었다.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현안 외교업무 보고로서 시작된 FRUS 시리즈는 현재 ‘FRUS법’(Public Law 102-38)에 의해 “미국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 중요한 외교 활동의 공식적인 다큐멘터리 역사기록”으로 발간되고 있다(Brynn 2011.1). FRUS는 미국의 외교사료집 편찬의 한 사례이지만 외교사료 편찬의 일반적인 모범으로 삼을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FRUS 시리즈를 통한 주요 외교정책 및 중요 외교활동 정보의 제공은 미국 정부의 과거 중요한 외교 정책과 행동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이 잘 인지된 정보에 기초하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게 하고, 후대의 정확한 역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는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외교사료집 편찬에서 나타나는 기록학적 쟁점을 미국 FRUS의 출판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쟁점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외교사 편찬과 관련된 기록학적 주제로는 보존기록 이용의 한 방법으로서의 외교사료집 편찬의 목적과 의의, 비밀 외교기록의 비밀해제와 공개 활용의 문제,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와 외교정책의 설명책임성 제공 간의 균형 문제, 외교사 편찬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 역사기록 편찬의 구체적 방법과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록학적 주제를 검토하기 위해 FRUS 시리즈에 관해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FRUS의 출판 내용과 맥락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FRUS 원자료 기록의 특성, FRUS 시리즈의 구성과 형식, FRUS 시리즈 출간의 법적 근거, FRUS 시리즈 출판 현황, 국무부 역사편찬실(Office of the Historian)의 조직, 기능, 인력에 대한 소개가 포함된다. 둘째, FRUS 시리즈 편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FRUS의 출판과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정치적, 기록학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셋째, 역사기록 선별과 비밀해제를 포함한 FRUS 시리즈 편찬의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을 개관한다. 넷째, FRUS의 원자료가 되는 외교기록 및 여타 국가안보기관의 비밀기록에 관한 접근 및 비밀해제의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필자가 주로 의존한 자료는 역사편찬실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다수의 FRUS의 편찬 역사와 쟁점에 관한 논문들이다.<sup>1)</sup> 우리나라에서도 외교사료집의 편찬이나 이용에 관한 논문은 외교사연구센

1) The Office of the Historian, Department of State, *Research on the Sesquicentennial of the Foreign Relations series*, 본고의 연구에 다수 활용된 이 논문들은 인터넷판으로서 하나의 긴 텍스트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들을 인용할 때 쪽수를 표시하지 않거나 1쪽으로 표시했다.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 [cited 2012.4.20].

터의 학술회의에서만 논의된 정도이고, 그 외에 외교사료집의 편찬 방법론과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없다. 미국의 외교사 편찬에 관한 기록학적 고찰을 시도한 국내 연구 문헌은 현재까지도 찾아보기 힘들다. 역사기록의 보존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만 정작 대중적인 이용을 위한 역사 편찬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한 실정이다.

## 2. FRUS 시리즈 개요

FRUS는 미국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 중요한 외교 활동의 공식적인 다큐멘터리 역사 기록이다. 1861년 링컨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업무 보고 형식으로 외교서한집으로서 발간된 이래 FRUS는 그 분량과 내용과 형식에 적지 않은 변천이 있었다. 1861년에 출간된 최초의 FRUS는 313건의 문건에 420쪽의 단권의 책자이었지만<sup>2)</sup> 미국정부의 팽창과 외교관계의 확대를 반영하여 가장 최근에 출간된 닉슨-포드 행정부의 FRUS 시리즈권의 분량은 약 44권(총 54권 예정), 15,000건의 문건에 총 5만 쪽에 달한다. FRUS는 발간 초기에 의회를 대상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에 보존기록(archives)으로 편찬된 것이 아니라 주로 전년도에 생산된 준현행 외교문서로 편찬되었다. FRUS 시리즈에 수록되는 기록의 연대는 그 후 점차 늦어지게 되어서 1930

년대에는 생산된 지 15년 이상 된 기록, 20세기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생산된 지 20년 이후의 기록으로 편찬되었다. '20년 기록 한계' 규칙은 1972년 3월 닉슨 대통령에 의해 확립되었다(EO 11652). FRUS 시리즈로 편찬될 기록의 연대는 1991년의 FRUS법에 의해 현재의 '30년 기록'('30 years line') 규칙으로 확립되었다.

FRUS 시리즈는 시기순으로 발간되며 발간 단위가 행정부 별로 모아져 있고, 그 안에 서브 시리즈로 각 국가/지역별, 특정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케네디 행정부는 25권(1961-1963), 존슨 행정부는 34권(1964-1968), 닉슨-포드 행정부는 54권(1969-1976)으로 묶여져 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외교기록을 편찬수룩한 FRUS 시리즈 일부와 케네디 행정부 이후의 FRUS 시리즈는 온라인으로 국무부 역사편찬실(Office of Historian) 웹사이트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1861년부터 1960년까지 출간된 FRUS 시리즈 375권은 모두 위스콘신대학의 '디지털 컬렉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위스콘신대학의 '디지털 컬렉션'(UWDC)은 FRUS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로 볼 수 있으나 각 권에 있는 주제와 저자 인덱스 이미지를 통해 개별 기록을 검색해야 한다.<sup>3)</sup>

FRUS 시리즈를 발간하는 법적 근거는 통칭 '1991년의 FRUS법'(FRUS Statute, PL 102-138)이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1956년의 국무

2) 최초의 FRUS는 1861년에 발간된 *Messag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the two houses of Congress, at the commencement of the second session of the thirty-seventh congress: Volume I*(1861)이다. 여기에는 주요 주제국 외교관에게 보낸 대통령 국무부 장관의 지시와 외교서한, 국토부, 전쟁부 장관의 보고, 해군의 보고 등이 실려 있다. <<http://digital.library.wisc.edu/1711.dl/FRUS.FRUS1861v01>>. [cited 2012.4.20].

3) 1861년부터 1960년까지 출간된 FRUS의 원본 책자를 스캔한 자료로서 파일 크기가 커서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 <<http://digicoll.library.wisc.edu/cgi-bin/FRUS/FRUS-idx?type=browse&scope=FRUS.FRUS1>>. [cited 2012.4.20].

부 기본권한법'(The State Department Basic Authorities Act of 1956)의 '미국의 대외관계 시리즈편'(Title IV,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Series)이다. 1991년의 FRUS법은 "미국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 중요한 외교 활동의 공식적인 다큐멘터리 역사기록"을 국무부 역사편찬실이 발간하도록 규정한다(Public Law 102-138, Title V). 동법은 외교정책 결정이나 외교활동이 기록된 후 30년 후에 FRUS 시리즈를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FRUS 시리즈의 편찬 원칙을 제시하며, 편찬할 기록의 식별과 비밀해제 업무 절차를 규정한다. 특히 이 법은 '국무부 역사적 외교기록화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Historical Diplomatic Documentation for the Department of State, 약칭하여 역사자문위원회, HAC)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역사자문위원회의 주요한 기능은 비밀기록의 해제에 관한 감독과 보고이다(Public Law 102-138, SEC. 401-SEC.407).

FRUS 시리즈에 선별 편찬되는 기록은 미국 국무부와 국가안보기관에서 생산되거나 접수한 기록으로서 국가기록관리처법(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ct)과 대통령 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에 따라 기록물 가치평가를 거쳐 영구기록으로 선별된 기록들이다. 즉, 모든 국가안보 기록이 영구기록은 아니다. 국무부 이외에 국가안보기관에 해당하는 기록물 생산기관에는 백악관(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군, 중앙정보부, 국제개발기구 등이 포함된다. 역대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록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들이다. 이 외교안

보 기록들이 FRUS 시리즈로 편찬되기 위해서는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야 한다. FRUS 발간 초기에는 국무부의 외교지시와 외교서한이 편찬 기록의 대부분이었으나 현재에는 국무부 외교 정책결정에 관한 기록과 대통령기록, 국가안보기관의 기록이 모두 선별 편찬 대상이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닉슨-포드 FRUS 시리즈를 통해 FRUS 시리즈의 일반적인 구성과 형식을 살펴본다. FRUS 시리즈는 1. 지역/국가별 편찬 방식, 2. 전통적 외교 주제별 편찬 방식, 3. 특별 주제 사안별 편찬 방식이 있다. 지역/국가별 편찬은 소련, 중국, 베트남, 한국, 동남아시아, 중동지역, 동유럽, 독일-베를린, 그리스-사이프러스-터키 등 주요 지역별·국가별로 외교기록을 편찬한 것이다. 전통적 외교 주제에 따른 편찬은 '외교정책의 기초', '미국외교정책의 조직과 운영', '대외경제정책', '대외원조', '군축', 'UN' 등이 있다. 특별 주제 사안별 편찬 방식에 따른 편찬은 '남아시아 위기', '아랍-이스라엘 위기', '에너지위기', '글로벌 이슈' 등이 있으며 '지구환경 문제' 등 국제사회의 변화와 학계의 학문적 주제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특정한 국제회의를 주제로 하여 편찬한 것도 있다. 닉슨 이전 행정부의 FRUS 시리즈를 보면 '파리평화회담', '말타 알타회담', '카이로-테헤란회담', '베를린(포츠담)회담', '외상회담', '제네바회담' 등 특정한 국제회의를 주제로 편찬한 것이 있다.

각 FRUS 시리즈의 권별 구성과 기록건의 제시방식은 대체로 동일하다. 닉슨-포드 FRUS 시리즈 중의 『미국의 대외관계 한국편』(*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 - 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 - 1972*)을 중

심으로 살펴본다. 각각의 FRUS에는 편집자와 편집장이 명시된다. 역사편찬실(Office of the Historian)에 속한 전문 역사가로 구성된 편찬자 혹은 편집자는 당해 FRUS를 편찬하기 위해 기록을 조사선별하고, 비밀해제를 의뢰하고, 각 문서에 대한 출처 맥락과 해설을 붙여 기술하고, 초고본(galley)을 교정한 일련의 작업의 담당자이다. 각 역사는 기록의 조사부터 시작하여 편찬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관되게 작업을 수행한다. 이들은 FRUS에는 편집자(editor)로 표기되지만 국무부 조직과 업무기능상으로는 편찬자들이다. 각 권에는 권두에 보도문, 서문, 원사료 목록(미출간 자료 목록), 기록의 이해에 필수적인 약어 및 용어집, 인물소개, 그리고 연구자에게 유용한 개관이 제시된다. 이 개관에는 편찬기록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사건 및 인물에 대한 소개와 편찬된 기록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서문에는 편찬의 범위 및 원칙 등이 제시된다. 각 권의 말미에는 색인이 제공된다(Department of State 2010, preface).

한 권에 편찬된 기록 문건은 시기별로 혹은 주제별로 제시된다. 시기별로 문서를 제시하는 편찬 방식은 기록학의 출처주의 원칙과 상관없이 다양한 출처의 기록을 한데 모아 역사적 흐름이나 하나의 주제를 이해하게 한다는 FRUS 시리즈의 출간 원칙에 따른다. 예를 들어, 1969년에서 1972년 간 닉슨행정부 시기 한미관계의 기록은 다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북한의 미국 첩보기의 격추와 비상계획 1969년 1월~11월, 문서 1~44(North Korean Shoot-down of a U.S. Reconnaissance Flight and Contingency Planning, January-November

1969)

- 미군 감축과 관련 국방 쟁점 1969년 11월~1971년 2월, 문서 45~88(U.S. Troop Reductions and Related Defense Issues, November 1969 - February 1971)
- 베트남 주둔 한국군과 군대 현대화 1971년 4월~1972년 12월, 문서 89~172(Republic of Korea Troops in Vietnam and Force Modernization, April 1971 - December 1972)

위의 주제 구분으로부터 미국 FRUS 외교사 편찬의 지역 분류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구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 분류로 보아 당대 한미간 주요 외교 현안이 주한미군 감축과 베트남에 파병한 한국군의 현대화계획임을 알 수 있다.

FRUS 시리즈는 전통적으로 책자 형식으로 출판되었다. 1861년의 FRUS는 1종으로 총 2,000부를 출판했으나 1980년대에 와서는 권당 4,000부를 출판해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웠다. 역사편찬실은 전통적인 책자 형식의 출판을 유지하면서도 1990년 이후에는 FRUS 시리즈를 온라인으로 출판하고 있다(1955년 이후 생산된 기록이 편찬 대상). 역사편찬실은 책자로 된 FRUS에 기록물을 수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 대 중반 이후에는 마이크로 피시로 추가로 기록물을 보완하여 출판했다. 이에 따라 케네디 행정부의 FRUS 시리즈에는 총 5권의 마이크로피시 보유판이 출판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아마존 킨들, 애플 아이패드 등의 모바일 장치를 이용해 무선으로 다운로드 받고 읽을 수 있는 전자책자(e-book) 형태로도 FRUS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다. 아이젠하워 행

정부, 케네디 행정부, 존슨 행정부, 닉슨-포드 행정부의 FRUS 시리즈는 역사편찬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pdf 파일 형식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sup>4)</sup> 특히, 닉슨-포드 행정부의 FRUS, 1964-1968, Vol. 19, FRUS 1969-1976, Vols. 10, 24, 32, E-12는 전자책자료로도 출판된 FRUS 시리즈이며 역사편찬실 웹사이트뿐 아니라, 전자책 리더기나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sup>5)</sup>

### 3. FRUS 시리즈 편찬의 발전과 기록학적 쟁점

#### 3.1 외교사료집 편찬과 행정부의 설명책임성

FRUS 시리즈는 미국 정부의 변화와 외교환경의 변화에 따라 편찬 방식과 편찬 기록의 내용이 변화했다. FRUS의 편찬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외교사료집의 편찬쟁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1861년 12월에 링컨 행정부가 외교서한집을 출간하여 의회에 송부한 것은 당시 의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링컨 행정부는 남북내전 시기에 남부 정부가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으며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했다. 이 외교서한집은 의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도 했지만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국내외의 지지를 끌어들이고 외교적 승리를 이

끌어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당시 주요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긍정적으로 인용됨으로써 이 외교서한집은 또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를 높이는 홍보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링컨 행정부의 외교서한집 발간은 정부의 비밀 외교기록을 의회 혹은 국민 대중에게 공개하는 외교사 편찬의 전통을 수립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Marrs 2011.10.24, 1).

한편 최초의 FRUS 외교서한집을 구성한 외교문서는 오늘날과 달리 보존기록(archives)이 아니라 당대에 생산된 현행 기록 혹은 준현행 기록이었다. 당시 일부 외교관들은 바로 전년도의 외교문서를 공개해서 발간하는 것이 효과적인 외교활동을 방해하거나 외교의 목적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1864년 찰스 애담스 런던대사가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에게 그러한 불만을 토로했을 때, 시워드 국무장관은 외교서한집의 발간이 행정부의 의회에 행정부에 대한 정보자료와 행정부의 활동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적인 의무(미헌법 제2조 3항)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워드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의회가 요청할 때마다 행정부의 외교활동 정보를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초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의회와 국민의 지지에 의존하며 행정부에게 부여한 권력의 집행에 대한 완전하고 진실된 정보를 의회와 국민이 제공받아야만 그러한 지지가 기대될 수 있다. 국민과 정부의 상

4)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nixon-ford>>. [cited 2012.4.20].

5)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ebooks>>. [cited 2012.4.20]. e-book을 이용해서 FRUS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기록물을 인용할 때 종이 책자의 쪽수를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자의 문건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예: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 XXXII, SALT I, 1969-1972(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10), Doc. 262.

호 신뢰는 우리나라의 삶의 조건이다”라고 외교서한집의 발간을 극력 옹호했다. 시워드 국무장관은 “국민은 애담스 대사만큼이나 자신이 만드는 문서를 볼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행정부 집행기록의 공개를 통해] 의회와 소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록을 비공개해야 할 이유는 그 기록의 공개가 현재 진행 중인 우호적인 협상을 저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뿐이라고 기록 비공개 사유에 관한 관점도 제시했다. 이와 같이 시워드 국무장관은 행정부의 FRUS의 발간이 행정부의 헌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Marrs 2011. 10.24, 1).

### 3.2 외교사료집 편찬의 정치적 고려와 이용

19세기말 미국이 필리핀과 쿠바에서의 군사 개입 등 제국주의적 팽창의 길을 걸을 때, FRUS의 출판 혹은 미출판이나 사전 공개는 홍보정책의 수단 혹은 공개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행정부의 당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Cozzens 2011.6.21, 1). 1930년대에 국무부 역사편찬실은 ‘FRUS 파리평화회담’의 편찬을 둘러싸고 비밀기록의 해제와 공개에 관한 국무부 내부의 논쟁과 외국 정부와의 갈등에 휩쓸리게 되었다. 국무부와 타 국가안보기관의 비밀 기록에 대한 접근과 편찬에의 이용 문제는 FRUS 시리즈 출간에 핵심적이면서도 해묵은 문제였으나 미봉적인 타협으로 그 갈등을 묻어두었다. 1922년의 이란의 석유 양도 재정협정에 관한 기록은 국무부 내부 부서와 이란 정부의 반대로 인해 FRUS 시리즈에서 이란편이 삭제됨으로써 아예 편찬되지 못했다. 1919년에 개최되

었던 파리평화회담의 FRUS 편찬은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1938년 3월에 국무부가 영국과 프랑스에 파리평화회담 기록의 출간 허가를 요청했을 때 프랑스 외무부는 논쟁의 소지가 많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베르사이유 조약의 기록을 출간한다는 계획에 대해 깜짝 놀라서 극력 반대했고 미국은 FRUS의 출간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는 1938년 12월, 국내 정치상황이 호전되고 나서야 비로소 파리평화회담 기록의 출간에 동의했다(Botts 2011.10.20, 1).

‘FRUS 파리평화회담’은 1942년에 최초로 출간되었고 프랑스가 독일에게 함락되고 이탈리아가 적국이 된 이차대전 기간 중에 총 5권이 출간되었다. 처칠과의 전후 평화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과 입장을 같이 하여 파리평화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기록인 ‘4자 회담’(Council of Four)의 기록을 편찬하는 것을 꺼려했다. 당시 미국 학계와 의회는 이러한 평화회담의 기록을 조속히 편찬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1945년 11월 루즈벨트 대통령과 로이드 조지가 사망하고 처칠과 이튼이 실권한 뒤에야 비로소 국무부는 영국 정부의 허락을 다시 요청하기 시작했다. 1~2차 대전 전간 시기가 FRUS 시리즈를 출판하기 위해 국무부의 역사가들이 외국 정부의 반대에 직면하고 동의를 받아야 했던 지난한 곤경을 겪었던 시기라면, 1950년대에 시작된 냉전 시기는 안보국가의 대두로 인해 국무부 역사가들의 외교비밀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FRUS의 출판은 더욱 어려워지고 위축되었다(Botts 2011.10.20, 1).

1955년의 ‘FRUS 알타회담’의 편찬은 그 편찬을 둘러싸고 심각한 관료적, 당파적, 국제적 논

쟁을 야기했다. 'FRUS 알타회담'의 편찬은 국무부의 비밀정책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 이전과는 달리 국무부 역사편찬실의 역사가들은 애초부터 'FRUS 알타회담'에 편찬할 기록에 국무부 외교기록 외에 합동참모부(JCS) 기록, 루즈벨트 대통령기록관의 기록, 백악관의 기록을 포함시키려고 했었다. 당시 '역사정책조사과'(후의 역사과, 역사편찬실)의 버나드 노블 과장은 딘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회고록 등 기존에 출판된 기록이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새로이 사료집을 출판할 경우 위험부담이 크므로 'FRUS 알타회담'을 출판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노블의 권유를 받아들여 애치슨 장관은 'FRUS 알타회담'의 출판을 보류했다(Botts 2011.6.14, 1).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공화당 정부는 'FRUS 알타회담'의 출판 보류가 민주당 좌파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윌리엄 노우랜드 상원의장은 존 델레스 국무장관에게 국무부의 기록이 "즉각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사기록"이며 "루즈벨트-애치슨 지지자들이 이 기록의 출판을 막고 있다"고 서한을 보냈다(Botts 2011.6.14, 1). 노우랜드는 델레스 장관에게 전시 연합국간 비밀협정에 관한 FRUS 특별판을 편찬할 것을 요청했다. 국무부에 새롭게 조직된 역사과(Historical Division, HD)에 대한 조사는 이러한 민주당의 당파성과 좌파적 편향에 대해 혐의를 풀어주었으나 이후 역사과는 오랫동안 FRUS 편찬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었다.

### 3.3 비밀 외교기록의 해제와 통제권에 관한 갈등

기존 FRUS의 편찬은 주로 국무부의 중앙파일(Central files) 기록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

에 국무부 역사과는 부처 간에 기록조사 접근을 위한 절차나 비밀해제를 위한 확립된 절차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었다. 당시 국방부는 군사기록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을 더욱 강화하려고 했고 국무부 역사가들의 군사기록에 대한 접근을 통제했다. 1954년 백악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하여 국방부의 FRUS 편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비밀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국무부와 국방부의 갈등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다.

'FRUS 알타회담'의 초고본은 영국 앤소니 이든 수상의 반대로 1954년 중간 선거 시점까지도 출판되지 못했다. 델레스 장관은 이 초고본을 의회에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그 누설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려고 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후 비밀기록에 대해 책임지기를 거부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FRUS 알타회담'의 출판을 요구했으나 국무부는 그 발간이 "국가안보와 외국과의 관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화하여 이미 비밀해제되어 있는 초고본의 출판마저 연기했다. 1955년 5월 결국 맥키들 공보국장은 'FRUS 알타회담'의 초고본을 뉴욕 타임즈에 전달했고 이를 알게 된 시카고 트리뷴지는 에버렛트 더크센 일리노이 상원의원을 동원해 델레스 장관에게 'FRUS 알타회담'을 공정하게 출판하도록 요청하게 했다. 델레스 장관은 'FRUS 알타회담'을 출판할 수밖에 없다고 이든에게 전보를 쳤고 이에 이든도 'FRUS 알타회담'의 출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Botts 2011.6.14, 1).

'FRUS 알타회담'의 지연 출판은 이후 미국 정부에 더 오래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FRUS 알타회담' 출판 직후 국방부는 새로운 조



사 조건(terms of reference)을 주장했다. 1955년 10월 국무부와 국방부는 오랜 협의 끝에 FRUS 시리즈에 군사기록을 포함시킨다는 것과 국익과 비밀해제에 관해 국무부가 우선적으로 “정치적” 결정을 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조사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조사 조건을 최대한으로 협의로 해석하여 ‘FRUS 알타회담’ 이후 출간된 ‘FRUS 카이로-테헤란회담’에서는 합동참모부의 회의록을 배제시킨다(Botts 2011.6.14, 1).

### 3.4 민간 역사자문위원회의 수립과 비판적 역할

‘FRUS 알타회담’은 국무부 역사가와 학계와의 협력관계를 정립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FRUS 출판의 정치화 혹은 정치쟁점화는 역사학자 정치학자 국제법학자들에게 FRUS의 완결성과 생존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던져 주었다. 국무부는 FRUS 출판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 단체의 감독과 자문이 의회의 당파적인 지시나 검열보다 더 우호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1956년부터 학회와 접촉하면서 역사자문위원회(History Advisory Committee, HAC)를 구성하기 시작해서 1958년 첫 번째 역사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역사자문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개시는 FRUS 시리즈의 진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역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FRUS 시리즈가 완전하게 기록이 구비되어 출판 일정에 따라 출판되도록 하는 국무부와 학계간의 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역사자문위원회는 미국 역사학회, 미국정치학회, 국제법학회, 미국사학

회, 미국외교사학회, 미국아키비스트협회의 회장을 각기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역사자문위원회는 1991년의 FRUS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었고 동법에 따른 FRUS 발간 일정의 준수와 비밀의 신속하고 적시적절한 해제를 촉구하는 비관을 통해 역사과의 FRUS 편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역사자문위원회는 현재 일 년에 4회 자문회의를 개최한다(Botts 2011.8.11, 1; Ahlberg and Ziler 2008, 1).

2000년에서 2008년까지의 시기에 국무부 역사편찬실(Office of the Historian)은 실장의 독단적 운영과 역사가들의 잦은 이직으로 사기가 정체되고 편찬자의 수가 감소하여 FRUS 시리즈의 출판이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위기에 처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2008년 5월 역사자문위원회는 ‘2007년 역사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에 정한 ‘30년 한계’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FRUS 발간 지연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을 촉구했다(Advisory Committee on Historical Diplomatic Documentation for 2007, 2007).<sup>6)</sup> 이에 역사편찬실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역사자문위원회에 제시하지 못했다. 역사자문위원회는 특히, 마크 수서 역사편찬실 실장의 잘못된 부서 운영을 비판했다. 마크 수서 실장이 역사편찬실의 책임을 맡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3년 동안에 역사편찬실 소속 역사가 35명 중에 가장 경험 많은 역사가 15명이 떠난 것은 FRUS의 적시 출판에 큰 저해가 되었다.

2008년 11월 당시 미국역사학회장이었던 윌

6) 역사자문위원회의 목적, 권한, 조직, 운영, 재정을 규정한 역사자문위원회 규약(charter)은 2009년 2월 19일에 제정되었다. <<http://history.state.gov/about/hac/charter>>. [cited 2012.4.20].

리엄 로저 루이스 역사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미국외교사학회장 토마스 쉬워츠 교수는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국무부 역사편찬실의 문제 있는 운영에 관한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Louis to Rice 2008, 1; AHA 2009, 1; NCA 2008, 1). 역사자문위원회 회의에서의 루이스 위원장의 공개적인 비판과 감사 요청은 곧바로 국무부와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무부 감사관실은 2009년 2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역사편찬실에 대한 감사와 직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보고서는 2009년 5월에 발표되었고 역사자문위원회의 비판이 정당했음을 증명했다. 감사보고서는 역사편찬실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실장을 부내 공모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보고서는 비단 역사편찬실장의 잘못된 부서 운영만을 지적인 것이 아니라 공석 중인 편집장 및 과장들의 임명, 부족한 역사가의 충원, 편찬 사무실 공간의 확대, 역사자문위원회의 인사문제에 관한 역할의 명확한 규정 제정과 위원회 규약에의 성문화, 홍보국의 역사편찬실 감독 강화 등 총 24개항을 권고했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2009, 1-2).

### 3.5 비밀해제기록의 재검토: 정부 투명성 vs. 국가안보 이익의 보호 쟁점

중요한 FRUS 시리즈를 편찬할 때마다 정부 투명성을 옹호하는 입장과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이 부딪쳤다. '투명성에 대한 책임 대(對)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할 책임'의 대립은 현재까지도 FRUS 발간의 최대 쟁점이다. 냉전시기를 거쳐 1980년대에 접어들어 이 쟁점은 더욱 국가안보 정보보호를 중

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980년 중반 국무부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개입과 이란 혁명에 대처하고 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중거리핵미사일 기지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느라고 분주했다. FRUS를 발간하기 위한 비밀해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국무부 관리들의 동향은 이미 비밀이 해제된 FRUS 편집본을 '재검토'(re-review)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즉, 해제된 비밀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에 데이비드 트래스크 역사편찬실 실장은 공식적인 구체절차를 통해 국무부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편집기록의 '재검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트래스크의 이유 있는 이의는 기각됐고, 1950년 전반을 커버하는 FRUS 시리즈의 발간은 그 후 몇 년 동안 연기됐다.

1980년의 비밀해제기록의 재검토(사실상의 비밀 재지정)는 국무부 내부의 비밀지정 및 해제 절차를 개혁하여 업무를 간소화하고 자유화하려는 1978년의 카터 행정부의 비밀관리제도 개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카터의 비밀관리제도 개혁법인 '대통령 명령 12065호'(E.O. 12065)에 따라 벤 리드 국무부 운영차관은 국무부 전부서의 모든 기록관리 문제를 관할하는 총괄 부서로 국무부 내에 비밀지정/해제센터(CDC)를 조직했다(현재의 정보프로그램서비스국(IPS)의 전신). 지역담당 부서나 기능별 담당 부서가 자신들의 업무 목표와 책임에 우선권을 두고 필요시 특별하게 수행하던 비밀해제업무 방식이 이 비밀지정/해제센터를 통해 수행되는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국무부는 이 새로운 비밀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1950-1954년간 생산된 기록은 예전의 방식으로

해제하고 1955년 이후 생산된 기록만을 새로운 제도로 비밀해제하게 했다. 1980년 초에 일부 국무부 관리들은 출간을 앞둔 몇 권의 FRUS 시리즈가 예전 방식으로 비밀해제 되어 하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부 유럽국(EUR)은 FRUS 편찬을 위해 비밀해제한 모든 기록을 다시 비밀로 재분류했다. 비밀지정 / 해제센터(CDC)는 1955년 이전 기록의 검토도 비밀해제 센터의 관할 책임이라고 역사편찬실과 그 상급 부서인 홍보국(Public Affairs)에 통보하고 '재검토'를 추진했다. 비밀지정 / 해제센터는 주로 외국정부 정보의 공개를 해당 외국정부로부터 허용받는 것과 국무부 일부 부서에서 FRUS 편찬을 위해 비밀해제한 기록을 다시 비밀로 재분류한 기록을 검토하는 일에 집중했다. 비밀지정 / 해제센터는 '20년 기록 한계'보다는 '30년 기록 한계'가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고 역사편찬실은 그 제안을 거부했다. 해제된 비밀기록의 재검토는 이미 지연된 FRUS의 발간을 더 지연시킬 것이었다. 30년 이상 된 기록만 편찬하도록 허용된다면 적시에 외교정책의 설명책임성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트래스크 역사편찬실장은 "자기 나라 정부의 기록 처분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외교문서 발간에 외국 정부의 허용을 요청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러한 태도를 "신경과민적인 약골", "사대주의"라고 지칭했다(Botts 2012.2.6, 1). 1980년 5월, 내부적 경로를 통한 의의 제기가 묵살되자 트래스크는 장관과 정책기획부(PPS)에게 직접 소청하고 역사자문위원회에 상황을 알려주는 비상 조치를 취했다. 트래스크는 "FRUS 시리즈 출간이 훼손되면 국무부의 열린 정부에

대한 책무도 마찬가지로 훼손되는 것이다. 민주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어떠한 정책적 이슈도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교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트래스크의 항소는 '안보와 투명성 간의 균형을 위한 테스트'를 방편적으로 이끌어 냈지만, 기록 '재검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트래스크와 윌리엄 슬래니 FRUS 편집장은 국무부의 비밀해제 절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역사자문위원회 전 위원이었던 저명한 외교사가 월터 르피버와 로이드 가드너를 만났다. 국무부와 민간의 역사가들은 공히 국무부 비밀기록의 접근 제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FRUS의 '20년 기록 한계'에 맞춘 적시 출판과 FRUS 편찬 기록의 완결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비밀지정 / 해제센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재검토'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패스트 트랙' 방식의 편집을 마치고 1980년도에 발간하기로 되어 있던 9권의 FRUS 시리즈는 그 후 10년에 걸쳐 발간되었다. FRUS 발간의 지연과 편찬의 비완결성에 대한 학계의 불만은 1990년과 1991년의 갈등 위기로 표출됐고, 결국 의회의 FRUS 법 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Botts 2012.2.6, 1).

### 3.6 의회의 외교사료집 편찬 통제: FRUS법의 제정

1980년대는 가히 FRUS의 위기의 시대였다. 미국의 학계는 국무부의 FRUS 발간의 지연과 편찬의 비완결성에 대해 통렬히 비판했다. 국무부는 학계의 '25년 이상 기록 발간' 요구를 거부하면서 외교사 편찬을 위한 기록 대상을 30년

이상 된 기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무부는 비밀이 아닌 최근 외교기록의 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책자 형태의 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이 절약되는 마이크로 필름 출간을 시도하기로 했다. 1985년 11월 레이건 대통령은 이러한 국무부의 계획을 승인했다. 민간 학계의 견해를 반영하는 역사자문위원회의 주장과 비판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홍보국(역사편찬실의 상급부서)에 자문위원회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하고 “위원회가 국무부에 부담이 되면” 위원회 규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국무부는 역사자문위원회가 공개 보류된 기록에 대한 접근할 수 있게 한 기존의 합의와 조치를 철회했고 이에 항의하여 역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선부른 국무부의 계산은 오히려 국무부로 하여금 FRUS 출간에 관한 통제 권한을 잃게 만드는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1990년에 이르러 FRUS는 역사가들과 영향력 있는 상원의원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의해 “사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의회는 1990년~1991년간 FRUS 시리즈의 발간에 관한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를 통해 의회는 정부의 외교문서 발간의 헌법적 기원을 확인했고 미국 외교관계의 개입주의적 변화를 반영했다(Botts 2012.2.6. 1). 마침내 1991년 10월 미의회는 ‘FRUS 법’(PL 102-138)을 제정했다. 이 법은 ‘1956년의 국무부 기본권한법’의 한 부분으로 추가되었다. ‘FRUS법’은 국무부의 역사편찬실의 역사가와 역사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모든 연방기관의 국가안보와 외교에 관한 역사적 비밀기록(26년 이상 된 비밀기록)에 대한 완전한 조사권한과

접근권을 부여했고 ‘30년 기록 발간’ 원칙을 천명했다. 법에 따라 이제는 의회가 FRUS의 발간을 통제하게 되었다. 이 법은 FRUS가 “완전하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어야 하며 미국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 외교활동을 종합적으로(포괄적으로) 기록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종합적으로 기록화해야 한다는 것은 FRUS의 범위가 종전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Public Law 102-138, SEC 198).

그러나 FRUS법의 제정은 비밀해제의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지도 않았고 FRUS 시리즈의 점점 늦어지는 출판을 방지하지도 못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비밀기록관리제도의 혁신에 의해 모든 연방정부의 비밀기록은 25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검토해서 보호기간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해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비밀해제제도의 혁신이 향후 FRUS 시리즈의 적시의 발간을 촉진시킬 가능성은 있다. 미국의 국제외교환경과 국내 정치의 변화가 여전히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9.11사건이 부시정부의 정부비밀주의를 강화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 뚜렷한 증거이다(Botts 2011.12.9, 1).

## 4. FRUS 시리즈 편찬 업무절차와 편찬 원칙

### 4.1 FRUS 시리즈 편찬 업무절차

국무부 역사편찬실의 역사가는 FRUS 시리즈의 발간을 위해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을 결정

하고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국무부와 기타 모든 국가기관의 비밀을 포함한 역사기록(26년 이상 된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역사기록물은 각 기관의 기록보유기간표에 의해 영구기록물로 선별된 기록물이다. 대부분의 한시 기록은 10년 이하로 책정되므로 25년이 지난 시점에는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영구기록물의 선별 기준은 미국 국가기록관리처(NARA)에서 제시되며 각 기관의 기록관리자가 그 기준에 따라 기록을 평가하고 폐기할 기록 목록이나 영구기록 목록을 국가기록관리처에 보내 최종적인 처분을 승인받는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와 외교관련 기록물을 생산하는 연방기관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영구기록물을 올바르게 선별하는 일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편찬실의 역사가는 자신이 맡은 주제나 지역의 FRUS 편찬 계획과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독립적으로 편찬 업무를 진행한다. 역사편찬실의 조직은 국가/지역의 편찬과 주제별 편찬이 결합된 3개의 편찬과와 비밀해제 및 출판 담당과, 정책연구과, 특별 프로젝트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약 40명의 역사가들이 FRUS 시리즈를 편찬하고 있다. 각 과에 소속된 편찬 역사가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FRUS에 수록할 기록을 선별하는 일부터 기록의 생산 맥락을 연구하고, 관련 기록을 조사 발굴하고, 수록할 기록에 대한 주해를 붙이는 작업을 모두 수행한다. FRUS 시리즈를 발간할 지역, 국가, 주제에 대한 사전 조사는 기존에 간행된 FRUS 시리즈를 우선적으로 참조한다. 기존의 FRUS 시리즈에는 각 지역, 국가, 주제에 관한 원자료의 목록과 출처가 제공되므로 편찬 역사가는 용이하게 관련 역사 기록물을 조사하거나 파악할 수 있다.

기존 FRUS 시리즈에서 제공된 용어, 약어, 인명 정보는 새로운 기록을 조사하거나 내용을 이해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된다. 편찬 역사가들이 이미 미국의 외교사나 국가안보정책 연구 경력이 있는 외교사 분야의 역사학 박사들이므로 이러한 조사업무가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FRUS 시리즈의 원사료가 되는 기록 생산체제와 출처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역사편찬실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록물 검색에 대한 이해와 기록시스템의 검색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FRUS 시리즈를 편찬하는 편찬 역사가들은 자신들을 아키비스트로 인식하기도 한다. FRUS 시리즈에 수록될 기록으로 선별되지 않은 기록이라고 해서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FRUS 시리즈 편찬을 통해 많은 중요한 대표적인 역사 기록들이 비밀해제되어 공개되고 국민에게 제시됨으로서, 정부 활동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실현할 뿐 아니라 역사 연구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FRUS에 수록될 기록을 선별하기 위해 편찬 역사가들은 국무부 중앙 파일뿐 아니라, 각 부서의 기록을 조사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국무부의 기록은 국무부 '기록관리시스템'에서 용이하게 검색하고 조사할 수 있다.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 포함)의 기록은 국가기록관리처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검색하고 조사할 수 있다. 국방부와 중앙정보부의 기록은 그 기록이 국가기록관리처에 이관된 기록이라면 국가기록관리처의 '기록조사카탈로그'(ARC)나 '보존기록데이터접근시스템'(AAD)을 통해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조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공공접근시스템'(Online Public

Access, OPA)이 개발되어 전자기록물을 검색·조사할 수 있다. ARC시스템도 곧 OPA시스템 안에 통합될 예정이다. 편찬 역사가들은 공공 접근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없는 비밀기록과 미이관 기록을 조사해야 하므로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FRUS 편찬 작업이 진행 중인 레이건 행정부의 대통령기록을 조사하기 위해 담당 편찬 역사가들은 캘리포니아주 시미벨리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서 대통령기록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 국무부 FRUS 편찬 역사가들은 1급 비밀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기관의 역사적 비밀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FRUS에 수록될 기록을 선별한 후 편찬 역사가들은 이들 기록에 관한 기술 및 해제 작업을 시작하면서, 보안 통과 과정(clearance)을 거친다. 만약 FRUS에 수록할 기록이 비밀기록이라면 편찬 역사가들은 기록물 생산기관에 비밀해제를 요청한다.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한 비밀기록은 국가기록관리처에서 대통령기록법과 대통령 명령 13526호에 따라 ‘의무적 검토’와 ‘자동 해제 과정’을 통해 해제하고 있다.<sup>7)</sup> 대통령 명령에 따라 국무부와 국방부 등 주요 연방기관은 비밀해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국무부는 ‘정보프로그램및서비스’(Information Program and Service) 부서를 통해 비밀기록을 해제한다. 오늘날에는 국방부 및 중앙정보부 등 타 국가안보기관에서 역사편찬실의 비밀해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RUS 시리즈에 수록할 기록이 비밀이 해제되

면 편찬 역사가들은 수록할 문서를 편집하고 주석을 붙여 초고본(galley) 원고를 만든다. 역사편찬실의 편집장과 역사편찬실장이 이 초고본 원고를 검토한 후 FRUS 초고본을 제작한다. 이 초고본은 국무부 내 관련 부서와 외부 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에 FRUS 시리즈로 출판할 판본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 4.2 FRUS 시리즈 편찬 원칙

FRUS 시리즈의 편집 원칙은 ‘FRUS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편집 원칙은 기록의 진본성 및 무결성의 보전과 기록을 통한 설명책임성의 제공을 강조한다. FRUS 시리즈의 편집은 “역사적 객관성과 정확성의 원칙에 의해 따라야 한다. 기록은 변경되면 안 되며, 출간본에 삭제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함이 없이 기록을 삭제하면 안 된다. 출간된 기록은 [외교]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사실을 빠트리면 안 되며, 정책의 결함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기록도 누락시키면 안 된다.”(Public Law 102-138, SEC. 401.(b))<sup>8)</sup> 이 편집 원칙은 1925년에 프랭크 켈로그 국무부 장관이 정한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FRUS 시리즈의 편집 원칙을 최초로 표명한 1925년의 부령(1925 FRUS Order)의 초안에는 서두에 “국무장관이 법에 의해 매년 보고해야 것은 아니지만 바른 정보를 가진 지성적 여론이 외교의 수행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FRUS의 발간 목적을 밝히고 있다(Botts 2011.10.27, 1).

7) Executive Order 13526은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의 비밀기록관리 대통령 명령 EO 12958을 오바마 행정부에서 수정한 대통령 명령이다.

8) FRUS의 편집 원칙은 1925년 이래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25년의 편집 원칙은 1991년의 'FRUS법' SEC. 401(b)항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기록 혹은 기록의 일부를 누락하는 것을 다음의 경우에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라고 제시한다. 그러한 경우는 1. 출간되면 현재의 외교협상이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2. 기록의 분량을 압축하고 불필요한 자세한 부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3. 다른 정부나 개인이 가진 국무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4. 주제에 핵심적이지 않거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불쾌한 언급으로 인해 다른 국가나 개인에게 불필요한 감정적인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5. 외교서한의 내용에 있는 국무부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개인의 의견을 억제시키기 위해서이다 (Office of the Historian 1925, 3). 이러한 기록 누락 단서에 관한 원칙은 1949년 5월 제정된 국무부 규정 045호 "Documentary Record of United States Foreign Relations"에도 거의 수정 없이 유지된다(Perkins 1950, iii).

## 5. 외교사료집 편찬을 위한 비밀기록 접근 및 비밀해제 업무

FRUS 시리즈에 선별 편찬되는 기록은 외교와 국가안보에 관한 기록들이므로 대부분 비밀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기록이다. 즉 FRUS 시리즈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국무부 역사편찬실의 역사가들이 이들 국가안보기관의 비밀기록들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각 생산기관에서 비밀을 해제해야 비로소 출판될 수 있다. 역사편찬실의 역사가는 생산된 지 26년이 지난 비밀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Public Law 102-138: SEC.

402.(a)(2)항). 미국국가기록관리처(NARA)와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에 대한 접근 요청은 '국가기록관리처법'과 '대통령기록법'을 따라야 한다. 국무부에서 미국의 외교정책과 외교활동 기록을 편찬할 때 대통령실이나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안보기관의 기록이 포함된다는 점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가 대통령기록과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기록에 접근하여 외교사료집을 편찬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기록 편찬의 특성은 FRUS 출판을 위해 비밀기록을 해제할 때 국무부가 타부서에 앞서 우선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권한을 갖게 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비밀관리를 규제하는 법은 의회가 제정한 법이 아니라 법령의 효력을 갖는 대통령 명령 13526호이며 이 대통령 명령에 따라 각 연방기관이 비밀을 해제한다. 미국정부의 비밀기록은 일반적으로 보호기간이 10년이므로 역사편찬실의 편찬 역사가들이 FRUS 시리즈에 기록을 수록하기 위해 비밀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이 원천 보호기간이 최대 25년까지 지정되어 있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이다(E.O. 13526 Sec. 1.5). 25년 이상 된 비밀 기록은 대부분 보존기록이며 중앙정보부 기록을 제외하고는 국가기록관리처(NARA)에 이관되어야 하는 기록들이다.

국무부에서는 정보프로그램서비스국이 비밀해제를 담당하며 국가기록관리처에서는 대통령 명령 E.O.13526호에 의해 설립된 '국가비밀해제센터'에서 25년 이상 된 소장 비밀 역사기록을 관리하고 생산기관의 협력을 받아 비밀분류를 해제한다(E.O. 13526 Sec. 3.7). 비밀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직원이 직접 NARA에 와서 비

밀해제 작업을 하든가 NARA의 직원이 생산기관의 지침을 받아 대량으로 비밀을 해제한다. 생산 후 25년 이상 된 영구 역사기록은 검토 여부를 부문하고 자동으로 비밀 해제되어야 한다. 또 기록이 생산된 지 25년 이상 된 기록은 그 해 12월 31일 자동 비밀해제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비밀 해제되어야 한다(E.O. 13526 Sec. 3.3). 각 연방기관은 자동비밀해제로부터 면제된 영구 역사기록에 대해서는 '체계적 비밀해제검토'를 수행해야 한다(E.O. 13526 Sec. 3.4). 각 연방기관은 어떤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요청이 있고 그 기록이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가 면제되는 기록이 아니거나 진행 중인 소송에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면 '의무적인 비밀해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E.O. 13526 Sec. 3.5).

역사편찬실의 역사는 EO 13526에 의해서도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를 가진 사람"이 자 역사 조사자로서 비밀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E.O. 13526 Sec. 4.4). 이러한 비밀관리제도에 의해 역사편찬실의 편찬 역사가가 요청한 비밀해제가 예전보다 원활하게 처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비밀기록의 생산량이 워낙 많아져 비밀기록의 해제 문제는 FRUS 시리즈의 출간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밀 자동해제 규정의 예외가 되는 정보의 유형을 보면 국가안보를 보호해야 할 정부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연방기관의 결정이 FRUS 시리즈의 발간이 추구하는 정부의 개방성(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의 추구하고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린 정부를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대통령 명령을 개정하여, 각 유형의 비밀정보의 노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동비밀해제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대통령 명령 13526호의 자동비밀해제 규정의 예외가 되는 정보는 국가안보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보이므로 개방성과 설명책임성을 추구하는 FRUS의 발간 목적과의 적절한 '균형 검증'을 통해 비공개되거나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FRUS 시리즈를 발간하기 위해 편찬 역사가들이 기록의 비밀해제를 요청할 때 쟁점은 '개방성과 투명성' 대(對) '국가안보의 이익 수호' 간의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이다. 역사자문위원회는 'FRUS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의 비밀해제와 비밀유지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비밀이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보호되는 것을 감시했다. 2011년 12월 역사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국무부 정보프로그램서비스(IPS)의 비밀해제 현황보고에 따르면, 국무부는 2011년도 자동비밀해제 검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정부비밀제도 총괄 관리기관인 '정보보안감독국'(ISOO)으로부터 만점을 받아 8개 우수기관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다(Advisory Committee 2011, 1).

## 6. 결론

FRUS 시리즈는 'FRUS법'이 규정한 대로 미국정부의 외교정책의 결정과 외교활동의 "완전하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기록으로 편찬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U.S. Senate, Public Law 102-138, Title IV). FRUS 시리즈의 출판은 처음부터 행정부의 국민에 대한 '정부 개방성·투



명성'의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민주주의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외교 기록의 조기 공개로 인해 “외교 활동의 장애를 초래하고 국익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은 일부 외교관과 국무부 관리들은 FRUS 시리즈의 출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냉전시기 동안 국가안보 정보의 보호를 책무로 하는 행정부의 여러 국가안보 정부기관은 FRUS 시리즈를 출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비밀 기록에 대한 접근과 비밀해제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기도 했다. 특정 FRUS 시리즈의 출판을 둘러싸고 당파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기도 하고 외국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FRUS 시리즈의 출판은 권력 간의 균형을 기반으로 하는 삼권분립제도에 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 행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보고하는 헌법적 책무의 수행으로 인식되었다. 행정부의 권력 집행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이 민주사회의 토대로서 더 중요하다고 믿는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역사가들은 FRUS 시리즈라는 외교 다큐멘터리 실록 500권을 150년에 걸쳐 만들어냈다. 미국에서 FRUS 시리즈의 발전은 민주주의 정부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개방성·투명성·설명책임성과 국가안보정보 보호와의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 갈등을 겪으면서 제도화되는 과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FRUS 시리즈를 출판하는 과정 중에 노정된

국무부 내부, 혹은 정부기관 간, 혹은 행정부와 의회·학계와의 갈등은 민주주의 정부의 두 가지 책임, 즉, 국민의 권력 위임을 받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행복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수행할 책임과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할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성숙한 국가사회로의 발전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정부 비밀주의에 쉽게 경도한 행정부 일부 관료들은 외교정책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이 외교사료집 편찬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의회가 'FRUS법'을 제정한 것은 정부의 외교정책과 외교활동을 중심으로 정부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민주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공히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윌리엄 루이스 역사자문회의 위원장은 FRUS 시리즈가 전세계가 인정하는 외교사료집 편찬의 모델이라고 자평하였다. 미국에서 FRUS 시리즈가 진화하는 과정 중에 대두되었던 여러 가지 기록학적 쟁점과 문제들을 그 시대적 배경과 국가적 변천의 맥락과 더불어 잘 이해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이 잘 보장되면서도 국가안보 정보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외교사료집을 출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정보의 비밀해제와 활용에 관한 논쟁과 제도화는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사례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미국 FRUS 시리즈의 발전과 기록학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더 심화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정은. 2011. 외교문서 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안.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연구센터 학술회의 『외교사 연구 활성화와 외교문서의 활용』.
- 마상윤. 2011. 외교사 연구의 의의와 외교문서의 활용.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연구센터 학술회의 『외교 사 연구 활성화와 외교문서의 활용』.
- 우승지. 2011. 외교문서 해제집 발간 의의 및 추진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연구센터 학술회의 『외 교사 연구 활성화와 외교문서의 활용』.
- 우철구. 2012. 프랑스의 외교문서집 발간 사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학술회의 『2012년 외교문서 공개와 외교사 연구』.
- 이상민. 2012. 미국의 외교문서집 발간 사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학술회의 『2012 년 외교문서 공개와 외교사 연구』.
- 이완범. 2012. 한국형외교문서집 발간의 필요성 및 의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학술회의 『2012년 외교문서 공개와 외교사 연구』.
- Advisory Committee on Historical Diplomatic Documentation for 2007. 2007.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Historical Diplomatic Documentation for 2007. Perspectives on History*,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cited 2012.4.20].  
〈<http://www.historians.org/perspectives/issues/2008/0809/0809not1.cfm>〉.
- Advisory Committee on Historical Diplomatic Documentation. 2011.12.12. *Meeting Minute*, December 12-13, 2011.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about/hac/december-2011>〉.
- Ahlberg, Kristin L., & Ziler, Thomas W. 2008. Public History and Public Audiences: the U.S. Department of State and Its Historical Advisory Committee. *Perspectives on History*,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cited 2012.4.20].  
〈<http://www.historians.org/perspectives/issues/2008/0801/0801pub1.cfm>〉.
-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2009. Chair of U.S. State Department's Historical Advisory Committee Resigns in Protest. *Perspectives on History*. [cited 2012.4.20].  
〈<http://www.historians.org/perspectives/issues/2009/0901/0901new3.cfm>〉.
- Botts, Joshua. 2011.10.20. FRUS at WAR: Appeasement, Alliance Polotics, and the Paris Peace Conference Volumes. *FRUS Sesquicentennial Research*.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frus-at-war>〉.
- Botts, Joshua. 2011.10.27. Eureka!: The 1925 FRUS Order (and Why You Should Be Nice to Archivists). *FRUS Sesquicentennial Research*. [cited 2012.4.20].

-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eureka-the-1925-frus-order>〉.
- Botts, Joshua. 2011.12.9. No Policy Issue Can Be of Comparable Importance: The 1980 FRUS Re-Review. *FRUS Sesquicentennial Research*.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1980-rereview>〉.
- Botts, Joshua. 2011.6.24.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The Politics of the Yalta FRUS. *FRUS Sesquicentennial Research*.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politics-of-the-yalta-frus>〉.
- Botts, Joshua. 2011.8.11. “The problem that you have undertaken to help us with is one of very, very great difficulty”: The Formation of the Historical Advisory Committee and the First HAC Meeting, December 1957. *FRUS Sesquicentennial Research*.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formation-of-the-hac>〉.
- Botts, Joshua. 2012.2.6. A Burden for the Department?: To The 1991 FRUS Statute. *FRUS Sesquicentennial Research*.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to-the-1991-frus-statute>〉.
- Brynn, Edward. 2011.9.29.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ries: An Orientation. *FRUS Sesquicentennial Research*.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brynn-on-frus-an-orientation>〉.
- Cozzens, Peter. 2011.6.21. A Surprising Manifestation of Backbone: The 1872 Foreign Relations Affair. *FRUS Sesquicentennial Research*.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the-1872-frus-affair>〉.
- Dennet, Tyler. 1925.3.26. Principles to Guide the Editing of “Foreign Relations,” attachment to a Memorandum from Tyler Dennett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Sesquicentennial Research*. [cited 2012.4.20].  
 〈<http://static.history.state.gov/frus150/1925-order.pdf>〉.
- Louis, Williams. 2008.11.28. William Louis (President of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 Chairman of Advisory Committee on Historical Diplomatic Documentation) to Condoleezza Rice, Secretary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ocumentary Series.” [cited 2012.4.20]. 〈<http://www.fas.org/sgp/advisory/state/wrlouis112808.pdf>〉.
- Marrs, Aaron W. 2011.10.24. The Constitutional Basis of FRUS. *FRUS Sesquicentennial Research*.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constitutional-basis-of-frus>〉.
- Marrs, Aaron W. 2011.6.24. Publicizing Foreign Relations in time of War: the Foundation of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Sesquicentennial Research*.

-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foundation-of-frus>>.
- National Coalition for History. 2008.12.12. State Department: Crisis in the Foreign Relations Series. [cited 2012.4.20].  
<<http://historycoalition.org/2008/12/12/state-department-crisis-in-the-foreign-relations-series/>>.
- Office of Inspector General, Department of State. 2009. *Management Review of the Office of the Historian, Bureau of Public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Report Number ISP-I09-43*.
- Office of the Historian, Department of State. 1925.3.26. Secretary Kellogg's "Principles to Guide the Editing of 'Foreign Relations'" and Cover Memoranda. *FRUS Sesquicentennial Research*.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frus150/research/1925-order>>.
- Office of the Historian, Department of State. 201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tatus of the Series. [cited 2013.4.30].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status-of-the-series>>.
- Perkins, E.R. 1950.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33 (in Five Volumes), Vol. 1, General* (preface by E.R. Perkins, editor)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U. S. Department of State. 201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IX, Part 1, Korea, 1969-1972*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9-76v19p1>>.
- U.S. Department of State. 2003~201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1~Vol. 41. Vol.E-1~Vol. E-15,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cited 2012.4.20].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nixon-ford>>.

[ 법령 자료 ]

- U.S. Senate. 1991. Public Law 102-138: An Act to authorize appropriation for fiscal years 1992 and 1993 for the Department of State, and for other purposes, SEC 198.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Historical Series.
- U.S. President. 2009.12.29. Executive Order 13526 on "Classified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 U.S. President. 2009.12.29. Executive Order 13526, Sec. 1.5. Duration of Classification.
- U.S. President. 2009.12.29. Executive Order 13526, Sec. 3.7 National Declassification Center.
- U.S. President. 2009.12.29. Executive Order 13526, Sec. 3.3. Automatic Declassification.

U.S. President, 2009.12.29. Executive Order 13526, Sec. 3.4. Systematic Declassification Review.  
U.S. President, 2009.12.29. Executive Order 13526, Sec. 3.5. Mandatory Declassification Review.  
U.S. President, 2009.12.29. Executive Order 13526, Sec. 3.3. Automatic Declassification, (b)  
(1)~(9).

U.S. President, 2009.12.29. Executive Order 13526, Sec. 4.4. Access by Historical Researchers  
and Certain Former Government Personnel; Sec. 4.1.(a)(3) 항.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im, Jeung-Eun. 2011. Status of Opening of Diplomatic Documents and Improving Method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Center for Diplomatic History Studies, Proceedings of Conference, *Promotion of Study of Diplomatic History and Use of Diplomatic Documents*.

Lee, Sangmin. 2012. Compilation of Diplomatic Documents in the United State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Center for Diplomatic History Studies, Proceedings of Conference, *Opening of the Diplomatic Documents in 2012 and the Study of Diplomatic History*.

Lee, Wan-Bum. 2012. The Need and Meaning of Publication of Korean Style Diplomatic Documents Compilation.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Center for Diplomatic History Studies, Proceedings of Conference, *Opening of the Diplomatic Documents in 2012 and the Study of Diplomatic History*.

Ma, Sang-Yun. 2011. Meaning of Study of Diplomatic History and Use of Diplomatic Document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Center for Diplomatic History Studies, Proceedings of Conference, *Promotion of Study of Diplomatic History and Use of Diplomatic Documents*.

Woo, Chul-Goo. 2012. Publication of French Diplomatic Documents.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Center for Diplomatic History Studies, Proceedings of Conference, *Opening of the Diplomatic Documents in 2012 and the Study of Diplomatic History*.

Woo, Seung-Gee. 2011. Meaning of Publication of Diplomatic Documents Descriptive Overview and Methods to Proceed.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Center for Diplomatic History Studies, Proceedings of Conference, *Promotion of Study of Diplomatic History and Use of Diplomatic Documents*.